

## 教科課程의 編成과 運營

威 宗 圭  
(淑明女大 教育大學院長)

### I. 머리말

教育問題는 흔히 目的, 內容 및 方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비단 教育에서뿐만이 아니다. 大小의 人間事나 社會 問題에서도 볼 수 있는 傾向이다. 그리하여 흔히 「왜」 「무엇을」 「어떻게」로 對應시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무엇을」은 教育課程의 構成이나 編制, 「어떻게」는 教育과정의 運營에 해당하는 問題라 하겠다. 즉 「教育課程의 構成과 運營」은 教育내용과 教育방법에 관한 問題로서 「왜」에서 제기된 教育目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教育課程은 教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이요, 方法을 낳게 하는 영역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教育作用에서 中核을 이루게 되는 教育課程問題에 대하여 初·中·高等學校 단계에서는 활발히 논의·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高等교육의 단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여 오지 않았었다.

1970年代부터 大學의 教科課程, 그 중에서도 주로 교양과정에 관한 관심이나 研究가 진전되어 왔는데, 大學院의 教育은 自由學習으로 이루어

어져 온 傾向이 없지 않았다.

물론 大學院教育의 強化를 위한 一聯의 努力과 더불어 教科課程의 개편, 教授方法의 개선을 위한 研究가 大學別, 學科別로 착실하게 進展되고는 있으나 專門大學院의 그것에 대하여는 法的 次元에서의 構成의 源泉도 基準도 없다. 다만 “……대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6학점”(교육법 시행령 제121조 3항)으로 規制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에 더하여 專門大學院 教育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한 시설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教授의 부족 상황도 큰 原因이 되어 現行 教科課程 運營에 급급한 나머지 이 分野에 대한 研究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 實態가 복합적인 要因을 이루게 됨으로써, 專門大學院은 교과과정뿐만이 아니라 學事 運營의 體制도 미약하여 그 定型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시인치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의 實態分析 結果가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11개 學系에 걸친 102개의 專門大學院(1983년도, 문교통계년보) 중에서 6개 學系에 걸친 39개 專門大學院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構成은 千態萬別일 정도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特性을 보여 주고 있음에 반하여 그 運營은 획일과 硬直性을 낳게 함으로써 編制

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많은 矛盾點을 야기하고 있음이 아쉬웠다.

39개의 전문대학원 敎科課程은 그 構成이나 運營面에서 共通要素, 즉 그 底邊이나 體制面에서 最大의 公約數로 부각되는 定型的인 性格을 抽出할 수 없었으며, 몽롱해짐을 느낄 정도로 亂脈狀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인 39개 전문대학원은 제각기 독특한 樣相을 지니고 있어서 39개 유형의 敎科課程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교과과정은 理論的으로 볼 때 모든 대학원이 同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多樣성과 多彩로운도 構成의 原理나 源泉 또는 基準과 모형의 바탕 위에 學校의 特性이 反映되어야지, 共通要因을 의면한 個性은 容納의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本稿에서는 위에서의 分析을 통해 교과과정 構成과 運營의 問題點을 고찰하되 [다음 事項에 대하여는 諒解가 따라야 하겠음을 前提로 叙述코자 한다.

첫째, 專門大學院에는 많은 경우 碩士課程과 研究課程 및 公開講座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碩士課程의 교과과정만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각 전문대학원의 요람 또는 편람에 紹介된 敎科課程 중에는 ① 학칙 시행세칙에서 규정된 內容과 교과과정 편제가 相異한 경우, ② 專攻, 選擇의 구분 없는 編制, ③ 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을 同一課程으로 편제하여 運營上的 差異點만 제시한 경우, ④ 특히 共通科目의 경우에는는 時間·學點數를 밝히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운 編制, ⑤ 運營方法이 多樣하여 分析過程에서 정확성을 잃기 쉬운 경우 등으로 분석과정이나 解釋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表 1〉 分析對象

區分 그룹別	系列別 專門大學院	分析對象數
A	敎育 大學院	17
B	經營 大學院	7
C	行政 大學院	5
D	產業 大學院	5
E	其他 5개 系列의 大學院	5
計	9개 系列	39

思料된다.

本稿를 엮기 위해 分析한 專門大學院의 學系別 分類에서 그 그룹과 分析對象數는 〈表 1〉과 같다.

## II. 敎科課程 構成의 問題點

### 1. 全體構造

法的 次元에 비추어 본 專門大學院의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源泉은 “...계절제 및 야간제 대학원에 있어서 대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는 規制 외에 基準도 모형도 없다.

다만 敎育法 施行令 제121조 제1항에서 “專攻科目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外國語試驗과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學位論文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원의 이수 학점도 24학점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또 대학원 규정(문교부 훈령 제328호)에서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실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大學院 敎育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부응될 수 있는 敎科課程의 構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文敎部는 1976년에 大學院 교과과정 개정에 대한 指示에서 ① 석·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을 科目當 2학점에서 3학점으로 개편, ② 學科單位로 공통필수 3科目 編制, ③ 각 학과 專攻 必須는 10~20 개 科目 以內로 제한, ④ 전공영역별 유사과목의 統合, ⑤ 碩士課程에서의 副專攻 勸獎 등을 시달한 바 있다.

위에서 提示한 大學院 교과과정 構成의 源泉이 그대로 專門大學院 교과과정 편제의 기준이나 模型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主要한 대목은 대체로 大學院의 規定을 따르면서 구체적으로는 각 專門大學院의 學則을 바탕으로 敎科課程을 구성하고 있는데, 全體構造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抽出할 수 있다.

첫째, 修了에 소요되는 履修學點은 24~30학점에 걸쳐 있는데 學系別 學點分布는〈表 2〉와 같다.

履修에 소요되는 전체 학점에서 論文은 2~6학점을 配當하고 있는데 29학점 이하의 경우에는 算入치 않고 있으며 30학점의 경우는 모두

〈表 2〉 修了에 所要되는 履修學點

學系列	學點數								計
	24	25	26	27	28	29	30		
A 그룹	10							7	17
B 그룹	5							2	7
C 그룹	1	1						3	5
D 그룹	2					1		2	5
기 타	2		1	1	1				5
計	20	1	1	1	1	1		14	39

算入시키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論文學點은 전연 배려치 않고 통과나 불합격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過半數에 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論文指導, 논문세미나 등의 學點을 算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敎科編制는 대체로 共通科目, 專攻科目(필수, 선택), 基礎科目 등 3개 領域으로 全體構造를 갖추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기초, 선택과목, 선수과목, 기본과목 등으로 敎科領域을 구분해서 전체 구조에 포함시키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듯 지나칠 정도로 細分해서 편제한 構造形式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한편 專攻必須만으로 26학점 또는 專攻選擇만으로 24학점을 편제하고 있는 單純한 편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 全體構造를 통한 敎科는 3개 專門大學院이 5개 學期로 나누어 配當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大學院은 4개 學期로 배당해서 履修케 하고 있다.

세째, 敎科時間當 학점 배당은 거개가 1時間單位를 1학점으로 편제하고 있으나, 敎科目에 따라 1.5~2 時間單位를 1학점으로 배당함으로써 修了에 소요되는 學點은 다같이 24학점이지만 授業量은 1.5~1.75 倍의 격차를 낳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學點에 算入하지 않는 敎科目을 편제·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24時間單位에 24학점을 배당하는 경우에 비하면 授業量이 무려 2.25倍가 되는 編制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또 同一 大學校 構內에 있는 몇 개의 系列別 專門大學院에서 A그룹에 속하는 대학원은 1時間當 1학점, B그룹에 속하는 大學院은 2時間當

1학점, 其他 그룹에 속하는 大學院은 1.5~2 時間單位를 1학점으로 編制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抽出한 敎과과정 全體構造上으로 볼 때 大學의 實情이나 學問領域別 特性에 따라 얼마든지 個性을 反映시킬 수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제각기 特殊性을 살리면서도 專門大學院이 요구하는 學問研究의 系列別 敎育 목적에 따라 共通要因이나 公約數를 담는 가운데, 體制나 定型을 알아볼 수 있도록 構成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 2. 敎科領域別 編制

### 가. 共通科目

共通科目의 편제는 전문대학원의 學問系列別 種別에 따라 敎科의 편제도 다채롭지만 이 領域의 敎科群에 대한 呼稱도 다양하다.

즉 이 敎科領域은 共通科目, 공동필수, 共同科目, 기본과목, 科目聽講 등이 있으며 A그룹에서는 敎職必須, 교직선택, 敎職科目, 敎職先修 등의 명칭으로 編制하고 있다.

이들 呼稱이 다양한 만큼이나 共通科目의 編制도 다양하다라기보다 亂立된 인상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A그룹에 속하는 14개 大學院의 공통과목은 敎職領域의 敎科로서 編制된 총 科目數 75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科目 중 「教育의 心理的 基礎」는 9개 大學院, 「교육의 철학적 기초」와 「교육의 사회적 기초」는 5개 大學院, 「教育課程 및 敎授理論」과 「教育測定 및 評價」는 3개 대학원에서 編制하고 있으며, 2개 大學院에서 편제하고 있는 科目이 11개, 餘他的 5개 科目은 14개 대학원으로 각각 分散編制되어 있다.

이들 共通科目은 곧 教育學 研究의 모든 영역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分科的, 並列的인 多敎科群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科目이 敎職을 위한 기초나 先修科目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敎職者가 必須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으로서의 內容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多樣하다기보다는 어수선향 느낌이 든다.

물론 위의 敎科目 分類에서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教育哲學」 「교육의 철학적 기

초」 및 「교육철학과 사상」 등의 科目은 「教育哲學」으로 묶어 분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 「教育哲學」은 敎科領域이지 敎科目은 아니므로 역시 75개 科目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이들 共通科目의 學點配當은 대체로 6~8학점에 걸쳐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14학점, 더욱 심한 경우에는 其他 그룹에 속하는 대학원에서 共通選擇으로 18학점을 編制하고 있다. 이 경우 총 30학점 중에서 共通 18학점, 論文 6학점을 除하면 專攻은 6학점으로 그치게 된다.

이렇듯 共通科目의 比重이 무겁다는 점도 문제거리나 共通科目을 選擇으로 編制하는 것은 또 하나의 問題點이 따르게 된다. 즉 共通科目은 同一한 系列別 學問領域에서 어떤 전공분야를 研究하든지 불문하고 기초적인 先修科目으로 이수해야 할 性質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選擇으로 편제하는 경우 그 機能을 다할 수 없지 않겠느냐의 問題이다.

이 경우 A그룹의 某大學院에서와 같이 ① 師範大學을 卒業했거나 2년 이상의 敎職經歷을 가지고 있는 者, ② 일반 대학에서 敎職科를 이수한 者, ③ 위의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 등으로 나누어 그룹別 選擇을 必須로 課하는 것은 合理的이고 科學의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共通科目을 選擇으로 編制하는 것은 그 뜻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그 뜻이 半減될 可能性이 높다. 이 경우의 選擇編制는 공통과목의 機能을 다할 수 없게 될 可能性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共通科目을 全然 編制하지 않는 곳도 9개 大學院이 있는데 學問領域의 特性에 따른 理由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學問系列의 共通要素를 찾아 編制에 反映시키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나. 專攻科目

共通科目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공영역 敎科目 編制의 특징도 다양하고 다채롭다.

먼저 專攻領域의 敎科目은 專攻科目, 전공필수, 專攻基礎, 학과필수, 專攻先修, 전공선택, 副專攻 및 과목 청강 등의 名稱으로 편제하고 있다.

전공과목에 대한 呼稱이 구구한 만큼이나 共通科目에서와 같이 敎科目數도 많다.

예를 들면 A그룹에 속하는 14개 大學院의 國語專攻 敎科目은 科目數도 많거니와 專攻學科 自體의 명칭이 국어전공, 국어교육전공, 한국어전공, 한국어교육전공 등으로 呼稱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專攻必須로 編制한 總 敎科目數는 49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科目 중 「國語教育論」 「國語學研究」 「국어학 일반이론」은 3개 大學院에서 편제하고 있을 뿐, 그 밖의 46科目은 모두 1개 大學院에서만 編制하고 있는 것으로서 國語科 專攻必須科目으로서의 性格이 모호해질 정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專攻必須科目으로 이수해야 할 共通性을 全然 缺如하고 있다 해도 좋을 정도로 國語科에서 부과하는 전공 과목이 千態萬別이라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專攻必須科目을 정하는 編制者의 敎科觀이나 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敎科選擇 및 조직의 幅을 넓힐 수 있다지만 그 한계성을 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專攻科目의 編制는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呼稱이 있는데 전공필수 5학점 配定으로 그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其他 그룹 중 26학점을 編制함으로써 전공필수 一色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있다. 또 B그룹 중에는 專攻選擇으로 24학점을 편제하여 履修에 소요되는 總 學點을 메꾸고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17개 科目을 편제하여 12 科目을 選擇·이수케 하고 있는데 다만 學期當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規制가 따르고 있을 뿐이다.

한편 D그룹 중에서 2 科目, 6학점 配當으로 副專攻 코오스를 설정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정도의 편제나 履修로서 부전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또 專攻科目의 編制와 學點配當으로 보아 24 科目을 48 時間單位로 24학점을 부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科目, 6 時間에 6학점을 配當하는 곳이 있어 이것은 專攻科目數, 時間數에서 각각 8:1, 學點配當에서 4:1이라는 엄청난 編制上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專攻科目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과목 청

강)과 「專攻先修」科目이다. 별로 익숙치 못한名稱인데 「과목정강」은 英語 3학점을 의무적으로 정강하고 「이수필」과 「이수미필」로 評價하며, 「專攻先修」는 전공 영역에 따른 先修科目을 必須로 課하고 있는 編制方式이다.

다른 教科目的 編制에서도 느끼는 일이지만名稱의 다양성이나 교과목의 種別이 지나칠 정도로 多邊化되어 있어 특히 專攻科目의 경우 어수선할 만큼 亂舞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됨이 아쉬워진다.

#### 다. 選擇科目

이 教科領域의 編制는 選擇科目, 일반선택 및 융통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稿에서 分析한 39개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5개 大學院이 선택과목을 편제하고 있는데 學點配當은 8~14학점에 걸쳐 있다.

이들 編制內容은 13 科目, 많은 경우에는 32개 科目 중에서 4개 科目을, 25개 科目 중에서 7개 科目을 선택할 수 있도록 構成하고 있다.

教科課程에서 선택과목을 폭 넓게 편제하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問題點이 있다. 즉 여기에서 편제되어 있는 科目은 A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B, C의 전공영역에서 선택하는 構成方針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選擇科目의 種별로 보아 전공선택의 性格을 띤 教科目群으로서의 內容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選擇領域으로 편제되어 있는 「융통과목」은 낮은名稱인데 교적, 필수, 선택과목 중에서 1 科目을 선택, 이수케 하는 것으로서 學點取得上 융통성을 부여하는 制度로 학생들의 편의나 관심을 살리기 위한 편제상의 융통성을 부여한 方法이라 하겠다.

#### 라. 基礎科目

이 영역의 教科目 편제도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다. 즉 基礎科目, 기본과목, 기초공통 필수과목, 先修科目, 補充科目 등이다.

이들 명칭으로 編制한 教科目은 주로 大學에서의 專攻學科와 相異한 專門領域에 입학한 者, 즉 轉科進學한 者를 대상으로 課하게 되는 코오스이다.

대체로 12~15학점의 기초과목 이수를 義務化

시키고 있는데 이 領域의 教科目은 大學院에서 편제하고 있으나 履修는 大學課程을 修學하게 됨을 특징으로 한다. 즉 學部에서 開設된 강의를 共同으로 受講케 하고 있다.

補充科目은 어떤 명칭보다도 기초과목의 性格을 잘 나타내 주게 된다. 즉 이 科目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전과 입학생, 學士學位를 취득하고 3年 以上이 경과한 후에 入學한 학생으로 입학 전형의 面接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必要하다고 인정된 學生에게 課하는 것으로 15학점 범위내에서 受講하게 된다.

이 경우 修了에 必要한 學點으로 39~45학점을 取得해야 되므로 學生의 부담은 크게 加重된다.

大學院에 따라서는 學點 없는 先修科目이나 기본과목 이수를 要求하는 編制方式을 갖춘 곳도 있다.

### Ⅲ. 教科課程 運營의 問題點

#### 1. 學期當 學點配當

教科課程을 구성하면 먼저 學期別 교과목의 時間과 學點配當을 정해야 하는데 專門大學院은 5學期制度,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는 規制에 따라 5개 學期間에 24~30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配當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개의 大學院 중 36개 大學院이 4개 學期에 걸쳐 配當하고 있다. 3개 大學院만이 5개 學期에 걸쳐 학점을 취득케 하고 있다.

또 學期當 學點配當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學則에서도 명백한 條文으로 規制해 놓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초과 매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즉 學期當 4~8학점을 配當·運營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專攻必須科目만으로 26학점을 編制해서 학기당 固定科目을 배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과 운영의 硬直性이 가장 강한 경우라 하겠다. 學問領域에 따라 專攻先修, 기타 관계로 必要한 경우도 있겠지만 教科課程의 운영에서 再檢討해 볼 일이라 사료된다.

대부분의 專門大學院에서 5學期는 論文學期라 호칭하는 경향이 많은데 論文作成이나 지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學問領域에 따라 綜合

하고 總括할 수 있는 敎科目 또는 特講 등을 1 科目만이라도 開設하여 運營하는 것이 제반 측면에 비추어 5學期制로서의 面目을 살릴 수 있는 合理的인 方法이 될 것 같다.

## 2. 敎科領域別 運營

專門大學院 敎과과정의 구성은 많은 경우 공통 과목,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의 3 코오스로써 全體構造를 갖추고 있다. 敎科課程 構成에서 강조되고 있는 選擇 코오스는 거의 編制에 反映시키지 않고 있다. 많은 大學院에서 專攻選擇 코오스를 편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엄밀한 意味에서 專攻科目이지 選擇課程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이런 性格을 띠고 있는 選擇科目 외에 敎과과정의 구성에서 말한 바와 같이 諸種의 명칭을 붙여 다양한 構造形式을 갖추어 運營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의 3 코오스別 運營上の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共通科目은 構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18학점의 編制上的 차이점이 있는데 대체로 6~8학점을 履修케 하고 있다. 한편 9개 大學院에서는 전연 편제하지 않고 있다.

共通科目은 專門大學院의 系列別 학문의 성격에 따라 어떤 專攻分野를 연구하든지 共通되는 先修學習課題로서의 性質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첫 학기에 配當·運營하게 되는데 專攻科目의 경우와 다른 점은 大單位 集團으로 편성해서 敎授하게 됨을 특징으로 한다. 적게는 10명 內外, 크게는 50~60 명의 학급 규모(class size)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國民學校 어린이의 60명과 成人 60명은 그 意味와 性格이 다르다. 더욱이 大學院 단계에서의 集團指導는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도 初·中等 敎育의 단계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問題는 敎科의 編制에 앞서 解決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專門大學院의 修了에 필요한 24 학점 중에서 共通 14학점을, 30학점 중에서 18학점을 課하는 경우도 그 特殊性은 인정한다지만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共通科目의 編制에서도言及하였거니와 이 領域의 敎科는 이수 대상을 區

分하지 않는 경우 共通選擇으로서의 뜻은 半減되게 될 것이다.

둘째, 專攻課程의 運營은 構成에서 본 바와 같이 각 大學院에 따라 다양한데 編制의 차이는 6~26학점에 걸쳐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8~12학점을 配當·運營하고 있다.

이때 專攻의 폭이 좁은 곳은 運營上的 융통성과 多樣性을 기할 수 있으나 專攻科目 一色으로 26학점을 편제·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 획일성과 硬直性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더하여 이들 專攻科目을 學期當 固定·配置하는 경우 일사분란한 運營은 기할 수 있겠으나 그 硬直性은 極에 달하게 된다. 요는 敎科課程 運營상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外面하는 結果를 自招케 한다.

한편 專攻科目의 運營은 學期別 學生단을 대상으로 配當하는 경우가 殆無한 實情이다. 대체로 無學期制로 合班해서 운영하고 있다. 學問研究의 수준이나 단계에 비추어 또 지나치게 小人數를 單位學習班으로 編成할 必要도 없으므로 당연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問題가 있다.

科目의 性格에 따라서는 專門領域의 研究段階에서도 先修學習의 性質을 띤 科目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敎科目 편제나 運營上 學問의 系列 또는 配列問題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運營方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基礎科目은 專門大學院의 敎과과정 運營에서 가장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초과목은 大學에서의 專攻과 다른 學問領域으로 轉科進學했거나, 大學을 卒業한 지 오래된 학생들에게 課하고 있는데 修了學點에 加算됨이 없이 12~15학점을 履修케 하고 있다.

이 경우 많은 難題를 안게 된다. 첫째로 이 領域의 科目은 敎과과정의 編制與否를 不問하고 大學에서 淸강 형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둘째, 기초 과목은 專攻領域 研究를 위한 先修科目으로서의 性質을 띠게 되므로 專攻科目 學習前에 이수해야 참뜻이 있을 터인데 대체로 3개 學期에 걸쳐 이수해야 할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 그러

나 大學에서의 開講與否, 時間重複 등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4개 學期에 걸쳐 이수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요는 전공과 기초를 同時에 이수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基礎나 先修로서의 뜻을 상실하게 된다. 세째, 專門大學院은 대부분이 夜間에 운영되고 있는데 職場을 가진 學生은 轉科進學을 봉쇄당하는 결과를 自招케 된다.

이런 理由에 비추어 기초과목 운영은 大學院에서 編制·開設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問題點이 있다.

### 3. 外國語·綜合試驗

위의 問題는 試驗內容이나 實施方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즉 專門大學院의 학위 논문 제출은 敎育법 시행령 121條의 規定에 따라 “1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과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위의 規定 외에는 전문대학원에서의 法的인 施行基準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學則이나 학칙 시행세칙에 그대로의 內容을 담고 있다.

이것은 큰 矛盾이다. 大學院에서는 學期當 10~12학점을 이수케 하고 있는데 학기당 6학점 取得을 초과할 수 없다는 專門大學院에 그대로 適用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法的 保障도 없이 융통성 있는 運營을 기하기 위하여 3學期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取得한 者에게 適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로 敎育法도 學則이나 學則施行細則上의 규정도 위배하게 되는 二重的 違法結果를 自招케 하고 있다. 그 是正이 아쉽다기보다 절실한 問題이기도 하다.

위의 問題가 해결되어도 다음과 같은 問題性이 따르게 된다.

첫째, 外國語試驗은 같은 學問系列에서 모든 專門領域에 동일한 문제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전공영역별로 출제 내용을 달리해야 할 것인지의 與否에 관한 問題가 있다. 또 위의 問題와 더불어 出題委屬의 방법도 합리적으로 施行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綜合試驗은 대체로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중에서 施行하게 되는데, 이들 科目 중에서 2~3 科目을 시행할 것인가, 綜合的으로 시행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또 外國語·綜合試驗은 대체로 7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外國語는 60점 이상을 合格으로 함으로써 大學院間에 격차를 보이기도 한다.

## IV. 맺는 말

現代社會는 과학·기술의 혁명과 高度産業社會의 出現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수반하는 社會의 質的 變化는 각 측면에서 고급인력의 수요에 副應코자 高학력社會의 出現으로 치달고 있다. 專門大學院의 學生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들 時代的인 특수성의 발로의 하나라 하겠다.

이런 觀點에서 생각할 때 專門大學院敎育은 지난날의 大學院敎育이 學生들의 自己活動에 의존하다시피 되어 온 傾向이나 폐단은 불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時急한 것이 敎科課程의 정비, 敎수방법의 개선을 통한 合理的 運營방안의 定立이라 하겠다. 그와 더불어 學事行政組織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體制나 內容을 갖추어야 할 것임은 再言을 不要로 한다.

이들 敎育의 內質化를 목표로 하는 專門大學院의 敎科課程 구성이나 운영이 각 大學院의 實情이나 특수성에 따라 自體的으로 계획, 운영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問題가 있다. 本稿에서 分析한 바에 의하면 學問의 系列別 특징에 따라 合理的인 構成이나 運營을 기하고 있는 側面도 있으나 39개의 대학원이 나름대로 39개의 原則이나 基準에 따라 編制·運營하고 있어서 백화난밭이랄까, 千態萬別의 樣相을 보여 주게 되어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이 不足한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마다의 특성만으로 着色되고 있는 것이다.

敎科課程 전체 구조면에서 공통, 전공, 선택, 기초과목 등의 코오스別 構成을 비롯하여, 각

코오스別 科目의 編制가 그러하다.

學點配當에 비추어 본 授業時間量이 A대학원과 B대학원 사이에는 물경 24:54라는 時間量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專攻必須 또는 전공선택 一邊倒로 構成·運營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修了에 소요되는 24학점 중에서 共通必須를 14학점이나 운영하고 있고, 學則에서의 規定과 教科課程이 相異한 경우도 있다.

學期當 學點取得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法的 規制가 있는데 4~8학점을 매당·운영하고 있다. 또 論文은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점을 부여하되 修了에 소요되는 學點으로 算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大學院 나름대로의 原則과 基準은 있다 하겠으나 專門大學院 전체를 관망하고 그 特性을 抽出할 수 있는 공통 요소, 또는 最大가 아닌 最小의 公約數도 보이지 않는다.

專門大學院의 교과과정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法的 基準이나 源泉이 없어서라는 理由만으로는 合理化할 수 없을 정도의 亂脈狀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實態나 處地에 비추어 본 小考에서 改善의 方向이나 교과과정 구성의 최소한의 基準 또는 模型을 提示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分野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專門大學院 單位나 전공을 달리하는 學科中心領域에 국한되지 않은 폭 넓은 研究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政策當局인 文敎部에서도 전문대학원 敎育의 內質을 기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構成은 물론이요, 效率的인 운영 방안을 누릴 수 있는 융통성과 伸縮性 있는 源泉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